



수 신 자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문서제목 [사후보도자료]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보 도 2024. 10. 21. (월) 오전 10시 30분 이후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이하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단위 청소년인권운동 단체의 산하 지부로, 서울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9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혐오발언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철폐되어야만 할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과 이에 그렇다고 답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태는 성평등 사회의 이념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그간 얼마나 권리 보장 제도와 현실에 무지한지를 확인시켜준 셈인 것입니다.

3. 따라서 아수나로는 공직자가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혐오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인권침해 결정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성소수자 학생 등 학교구성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 마련을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개요

- 성소수자 혐오발언 공직자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4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마포녹색당, HIV/AIDS인권행동 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프로그램

사회 정규식(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연대 발언

- 송지은(변호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동)
- 최보근(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유량(교사,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 나비(양육자, 성소수자부모모임)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단위 참여자

퍼포먼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정훈 의원 가면을 쓴 참가자가 각각의 인물이 발언한 내용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문]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 성소수자 혐오발언 공직자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지난 10월 8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야말로 반교육, 반인권, 반소수자 3관왕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자인하는 격과 다름없는 행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성평등 사회에의 무지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무에의 무관심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이다.

무지의 베일에 갇힌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현 한국 사회의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따위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만 할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과 이에 그렇다고 답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태는 성평등 사회의 이념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그간 얼마나 권리 보장 제도와 현실에 무지한지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더불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에의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는 심각한 수준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비롯해 그간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다양한 존재들의 신체적 상태와 환경적 조건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공공시설들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성소수자, 손상 또는 장애를 지닌 이들과 같은 존재들도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란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의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조정훈 의원의 몰이해적 발언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절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시설을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확장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목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시설 이용에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그 둘의 무책임한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그 존재조차도 재차 부인당하는 상황에 놓여져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도 불과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여전히 함께 이곳저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삶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과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부인된 성적 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존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그 같은 무책임한 질의응답이 공식 석상에서 서슴없이 나올 수 있게 한 현 정부와 국회에 마땅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세계’를 꿈꿀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똥,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마포녹색당, HIV/AIDS인권행동 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열라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성소수자부모모임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발언문과 사진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는 상기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 활동가) 발언문

포용적 학교 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혐오표현을 사과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 활동가)

2024년 10월 9일, 국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나눈 질의와 답변을 통해 두 공직자의 무지함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인식수준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청소년들에게 ‘남성, 여성, 장애인 그 외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 상식이나 인권 일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에 놀랐다. (아니, 사실 놀랍지 않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세금이 저런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에게 사용된다는 것이 분노스러웠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시설이용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헌법은 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기본전략으로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개념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가 채택한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도, 국가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기조도 모른채 국정감사라는,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지와 혐오만을 드러내었다.

‘땡동’은 상담채널로 연락해 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 지원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세상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 및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땡동은 약 10년간의 상담 지원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오랜시간 머물게 되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차별을 확인해 왔다.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정확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경우 성별구분이 엄격한 학교의 시설과 시스템으로 인해, 매 순간 굴욕감과 좌절을 경험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기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땡동은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여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차별이 없는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와 ‘학생 인권보장’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어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구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별적 법령의 각 조항에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학교 화장실 등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성중립화장실’, ‘성별구분 없는 1인용 탈의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제시하였다. 학교 시설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화장실을 비롯한 학교의 시설을 성중립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기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가이드라인,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설치 등 이미 실현된 사례도 충분히 축적되고 있었다.

법정책의 부재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있고, 동시에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사회적, 세계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은 하루빨리 국가차원의 실태파악과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어떤 학생도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부터 표명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동성애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또 한번 놀랄 일이다. 이는 사실과도 다르고 명백히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혐오발언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성평등 관련 내용을 삭제한 행보에 비추어, 이주호 장관의 이번 혐오발언 역시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평등은 공직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무지와 혐오를 국민 앞에서 드러낼 때, 국민 중의 한 사람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감각하는 배제와 위축감, 분노나 냉소 이면의 슬픔과 상처를 보고 듣고 가늠하며, 이번에도 두 공직자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반드시 있다. 학교 내의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국가의 공식 통계로 파악된 바 없지만,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답답해하며 평등에 찾아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매일 있고, 담임 교사와 상담교사에게 트랜스남성으로서 수학여행시 숙소배정을 고려해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 보호자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교육청에 문의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이미 가시화된 청소년 성소수자 한명 한명을 만나며 더 포용적인 환경을,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화장실과 동성애’ 따위의 바보같은 문답을 주고받고 있을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여라.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주호와 조정은은 혐오표현을 사과하라. 지금을 살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마침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 있을 것이고, 그곳엔 더 이상 혐오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유랑 교사(성소수자교사모임QTQ)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교사모임 QTQ입니다. 오늘 저는 10대 때는 성소수자 학생으로, 현재는 성소수자 교사로 여전히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10년간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학생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학교에는 남여로만 나뉘어져 있는 화장실과 기숙사가 있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 학생들과 혼자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구성원들은 기숙사와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사용해야하는 화장실과 하루의 반을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끊임없이 본인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와 함께 삶을 살아갔던 우리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서 생존하기 위해 제안했던 성중립 공간을 고민하고, 학교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만들기 전, 전체 구성원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장에서 나왔던 걱정과 우려와 달리 실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진 후,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은 성별로 나뉘어진 화장실보다 성중립 화장실 칸을 더욱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 사용한 적이 없어 낯설고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지’했기 때문에 불편한 걱정과 우려가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만들어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비단 성소수자 구성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친구의 화장실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장이 되었고, 혼자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유아동과 노인이 도움을 받아 보다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몸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화장실 사용이, 오줌 쌀 권리가 보장되는 장을 보며 우리는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정상적인 몸에 대한 기준과 이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의 기준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교사로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의 존재와 사랑, 정체성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는 누군가의 인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학교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권리와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살아가고 서로의 배움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존재들이 학교를 다양함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실과 학교에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몸과 존재가 있는지, 왜 누구는 학교에서 공간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구는 화장실조차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지 학생, 양육자,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떠한 몸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맞설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에 노출되어 학교생활과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들 편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정체성도, 그 어떠한 몸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안전한 학교에서 편안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최보근(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발언문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최보근입니다.

만약 국회에 모든 남자화장실을 없앤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의원부터 화장실을 못가서 난리가 날겁니다. 문제의 국정감사는 조정훈 의원님, 이주호 장관님이 화장실을 못가서 진행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성 화장실이 없던 때는 있었습니다. 2대 국회에서 당선되어 5선의원을 한 여성 정치인, 박순천 의원은 국회에 여성 화장실이 없어서 방광염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고 국회를 옮기니 그제서야 화장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모두의 화장실도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화장실을 마음 편히 못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의원님, 장관님은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갈 수 있었고 모두의 화장실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 학교에 모장실이 생겼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모두를 위한 화장실 준공 환영기자회견을 두눈으로 봤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어온 총학생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트랜스젠더, 젠더퀴어들은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된다는 것ですよ. 장애인도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의 도움을 못받아서 화장실 안에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지 못한다는 것ですよ. 양육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야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ですよ.

조정훈 의원님, 이주호 장관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화장실이 있는게 당연하고 어떤 화장실이든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당연함에 가려져 화장실을 못가는 사람을 이해할 생각도 없었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장실 덕분에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누군가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교육청의 모장실 교육이 중요한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

이 생각이 뭐니까?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화장실 교육은 인권교육이면서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성교육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두의 화장실 교육을 없앨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일삼는 조정훈 의원님, 이주호 장관님부터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자격 미달 위원장과 일부 위원으로 꾸려질 국가인권위에 같은 인권위원회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조정훈의원과 이주호 장관의 국정감사는 물이해, 몰상식, 거짓말, 명백한 혐오표현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비 활동가(성소수자부모모임) 발언문

저는 성소수자부모모임의 나비입니다.

제 아이는 트랜스젠더로서 어렵게 성별정정을 마쳤지만 여전히 화장실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 국회와 교육부의 수준이 참으로 걱정되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당신은 5년전 세바시 강연에서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생존, 16년동안 세계은행에서 일하며 세계유수의 나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의자뺏기 놀이가 아니라 의자 더하기 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자나라인 카타르 마카오 싱가포르가 아닌 캐나다 미국 호주처럼 살고싶은 나라 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있는 나라들은 멋진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내가 잘살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주변이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MIT 대학에서 주는 상, 일명 ‘저항하라’는 상을 예찬하였지요. 그 때 수상자인 미투운동처럼 패적함에 저항하는 것이 파격이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님, 당신이 주장했던 캐나다 미국 호주는 모두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동성혼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들 나라는 모두 성중립화장실이 도입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세계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 것만 알고, 왜 살고 싶어하는지,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더하여 MIT에서 주는 ‘저항하라’는 상에 대해 예찬하면서 그 저항이 당신이 강조하는 ‘패적이고 익숙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당신이 월드 제네레이션이라고 자부하는데 그 자부심에는 성소수자의 존엄과 행복은 없는건가요?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인 화장실 문제와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말고로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사람의 존엄과 행복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이주호 장관님, 1년전 교육 티비 국정대답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에는 성소수자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이 던진 사악한 질문에 장관께서는 어리석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소수자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말은 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계신지요. 이런 질타가 싫다면 저를 탓할게 아니라 장관님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조정훈 의원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은 동성애와 상관이 없지만, 동성애 좀 하면 어떻습니까. 동성애 부부들은 지금 누구보다 기를 쓰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하던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트랜스젠더든 외롭지 않겠다고, 결혼하고 애도 낳겠다고 우리는 다 환영입니다.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땡큐입니다. 오히려 좋아요.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올로프 스쿠그 유럽연합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대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하지 않냐고 묻자 안창호 위원장이 말하기를 소수자가 다수자를 차별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서구사회는 다수자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던 한국인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입니까.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들은 왜 이렇게 국민을 부끄럽게 합니까? 왜 국민의 삶을 쪼그라들게 합니까?

성소수자 부모로서 같은 연배의 중장년으로서 당신들의 허물이 이 나라 모든 어른들의 잘못된 것 같아 이 사회의 성소수자에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가 다 미안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사과하시고 앞으로 공부좀 하시고 상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법을 모르는 국회의원, 교육주체가 없는 교육부 장관을 보는 마음이 갑갑합니다. 현행 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가 아닌 차별과 혐오인줄도 모르고, 학교에 언제고 존재했던 성소수자를 위법이라며 매도하는 광경에 실소가 나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막아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차별적 관념과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화가 국정감사라는 가장 공적인 통로에서 나왔다는 점은, 공직자의 기본적 태도를 망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발화자가 무려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교육위원회’ 간사이며, 교육정책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심지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본인의 지역구에 “화장실 남녀구분 없애자는 교육정책 이젠 STOP!”이라며, 기초적 사실관계 왜곡은 물론 포용적 정책을 본인의 정치적 입맛대로 해석하며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합니다.

멈춰야 할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 당신의 혐오정치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두 공직자는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믿고 싶은 학교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민생에 학생 청소년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연대자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제도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 상황을 더 고착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이제는 ‘위법’이라고까지 근거 없이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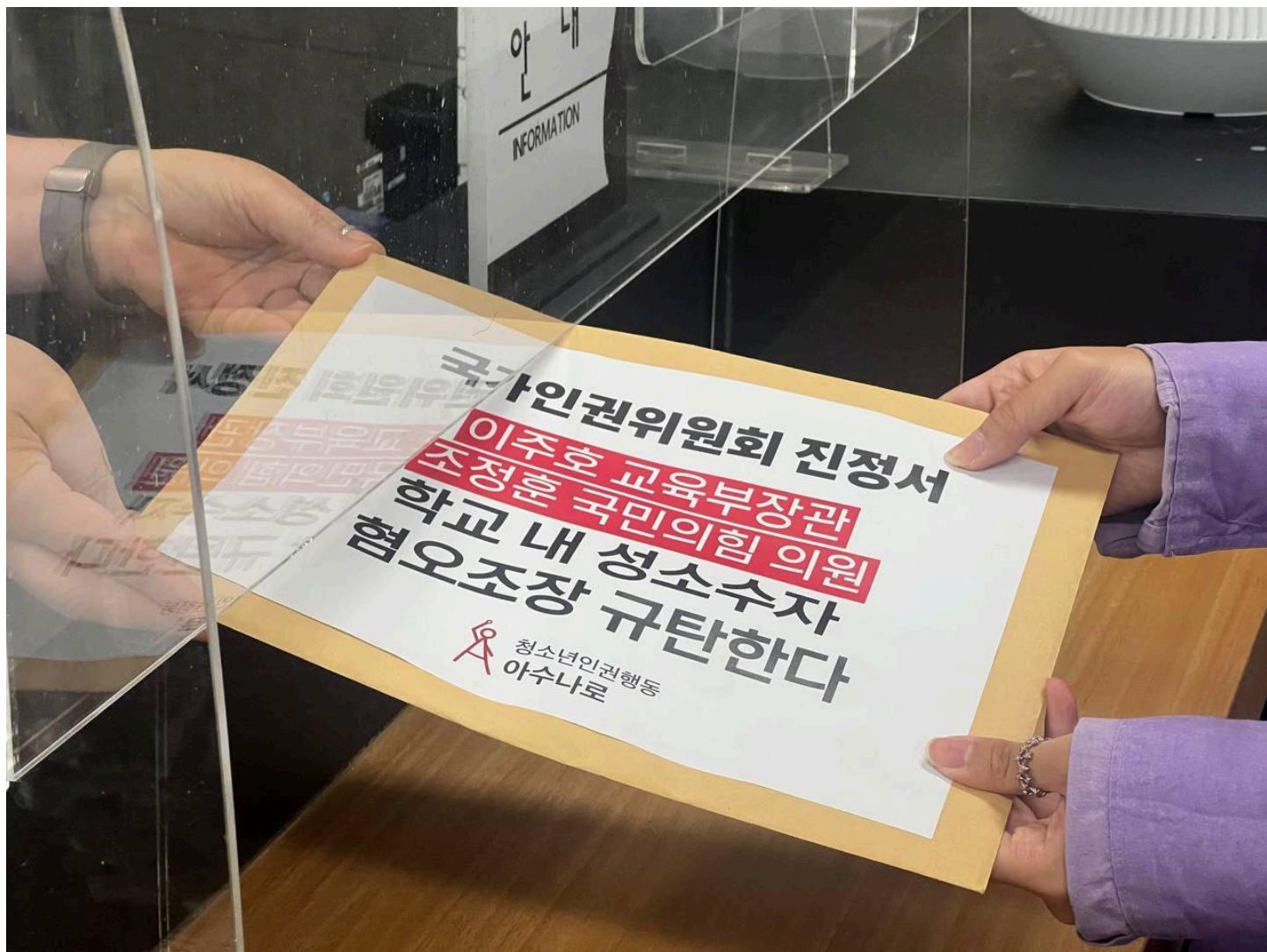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촉구합니다. 본 진정 건은 다툼의 여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혐오표현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들어서고 인권위의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에 인권의 기준이 없다면, 그 존재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울이 될 것입니다.



[사진 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bpuRF9U22TjfUTmkff_GQh7bQ5FJVe_4/view?usp=sharing